

연구논문

자녀 출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Childbirth on Life Satisfaction

김현식^{a)} · 정미옥^{b)} · 백지선^{c)}

Hyun Sik Kim · Miock Jeong · Jeeseon Baek

한국에서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출산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 초기 아내와 남편의 배우자관계 만족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출산을 하지 않은 아내와 남편과 차이가 있는지 2010년 인구및주택총조사와 2012년 사회조사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연계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2010년 측정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강한 인과적 추론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남편의 모든 만족도는 출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아내의 경우 다른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출산한 집단에서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의 만족도에서 남편의 만족도를 빼 부부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역시 다른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관계 만족도에서 아내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의 초저출산의 기저 요인으로 출산에 따른 아내의 만족도 하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별화된 출산 및 육아 노동의 분배를 반영하는 것으로 커다란 의미를

* 이 논문은 2016년 통계개발원 보고서 《사회조사와 인총 표본조사 연계자료 분석 및 활용》 2절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원래 보고서와 이 논문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 싶은 독자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원래 보고서의 원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http://kostat.go.kr/edu/sri_kor_new/1/1/index.action?bmode=read&p_idx=381

a)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김현식.

E-mail: sochyunsik@khu.ac.kr.

b) 통계청 고용통계과 통계주무관.

c) 통계청 산업동향과 통계사무관.

가진다.

주제어: 출산, 배우자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연계자료

There has been growing scholarly interest in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after childbirth as a critical factor underlying lowest low fertility rates. We assess whether wives and husbands experienced declines of life satisfaction after childbirth using statistical linkage data combining 2010 Census and 2012 Social Survey. By controlling for a wide array of confounding variables measured in 2010, we are able to draw stronger inferences on estimates we retrieve in this article. Our results reveal that childbirth did not carve out any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ree dimensions of life satisfactions except for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lines of wives of satisfaction with their husbands. This finding suggests that wives' decline of satisfaction with their husbands would be one important factor behind lowest low fertility rates and it is a sheer demonstration of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Key words: childbirth, life satisfaction, statistical linkage data

I. 서론

한국은 2001년 합계출산율 1.297을 기록한 이후 합계출산율 1.3 이하로 정의되는 초저출산 현상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김현식 2017a; 통계청 2016). 이러한 초저출산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김두섭 2007; 김현식 2016; 이삼식 외 2010; Kim 2014, 2015),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

또는 극복하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 2015).

출산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출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보인다(김현식 2012a). 출산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락이 초저출산의 장기화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현실에서(경향신문 2017), 출산이 정말 삶의 만족도 하락을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자녀 출산이 삶의 만족도 하락을 가져온다면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반대로 출산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아는 한 출산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한국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김현식(2012a)과 박경환(2012)의 연구가 예외적인 것 같다.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자녀 출산에 따른 아내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추적한 김현식은, 만족도의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가만족도와 주거만족도는 하락했지만 가족만족도, 친척만족도, 그리고 사회친분만족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또한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관리자패널을 사용하여 출산 전후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박경환은 여성관리자의 경우 출산 후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

한국과 다르게 서구에서는 출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에서는 2016년 “부모됨과 행복”에 관한 특별호를 발간했을 정도로 최근 그 관심의 정도가 높아졌다(Kohler & Mencarini 2016).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사회 이론적인 측면에서 출산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출산은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Hansen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최근의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Myrskylä & Margolis의 연구(2014)에 따르면 출산 후에 행복의 크기가 커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독일과 유럽의 자료를 분석한 다른 연구는 첫째 자녀 출산은 행복을 높이고, 첫째 자녀만큼은 아니지만

둘째 자녀 출산 역시 행복을 높이지만, 그 크기는 크지 않다는 발견을 보고했다 (Pedersen & Schmidt 2014).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자녀 출산이 배우자관계 만족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자녀 출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여러 인과기제들을 사회이론에 근거하여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2012년 사회조사를 기준으로 2010년 인구및주택총조사와 통계적으로 연계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정미옥·최필근 2014, 2016),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례 수의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유사한 종단자료의 분석을 확보하였다. 또한 출산 초기 삶의 만족 효과들을 남편과 아내의 개별 수준에서 살펴보고, 이에 더해 부부 수준에서 아내와 남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차이를 검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의 삶의 만족도가 성별화되어 있는 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사회 이론 및 연구 가설

자녀 출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 이론적 가설을 살펴보면 자녀 출산과 만족도 사이에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 모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 출산이 만족도와 양의 관계를 이룰 것이라는 대표적인 이론적 입장은 선별효과(selection effect)이다(김현식 2012a; Cetre et al. 2016). 예컨대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높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할 성향이 높기 때문에, 자녀 출산 자체가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관계 만족도와 자녀 출산은 양의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자녀 출산에 따라 만족도의 변화를 예측하는 인과론적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다만 자료나 통계 모형의 한계로 인하여 선별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회 이론은 역할축적(role cumulation)과

역할긴장(role strain)이론이다(McLanahan & Adams 1987). 역할축적은 한 사람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증가하고 자기정체성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역할축적의 논리는 여러 역할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일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한 영역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다른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어도 간난 아이의 재물을 보면서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고, 가족 내에서 갈등관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면 가족 내에서 겪은 긴장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Damaske et al. 2014).

이에 반해 역할긴장이론은 역할과잉(role overload)과 역할갈등(role conflict)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할과잉은 여러 역할에서 오는 다양한 기대가 겹치면서 그 모든 역할을 만족할 정도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주관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컬으며, 역할갈등은 두 개 이상의 상반된 역할들로 인해 역할들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 가족 내에서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과, 여러 (시)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역할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자녀 출산으로 인해 하나의, 그것도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역할이 늘어나게 되어 역할과잉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더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매우 많은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다른 역할과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아내의 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돌봄을 부부 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 아이 출산에 따른 남편의 경험을 연구한 오제은(2011)은 “출산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가사노동에 대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배려하고 가사노동의 주체로 참가하느냐의 여부가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결정”한다고 적었다. 산후 아기 양육의 측면에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우울을 겪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선옥 외 2010).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성별 분업화를 생각할 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점에서 출산과 더불어 아내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강하게 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분석한 박종서(2013)는 기혼남성이 응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부간 양육과 가사활동에 있어 반씩 나눠서 하거나 남편이 더 많이 하는 비율은 25%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운다.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배규식 2012) 역할축적보다는 역할긴장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기에 출산은 여러 부분에서 만족도를 하락시킬 것이다.
- 이러한 만족도의 변화는 부부 사이에 차이를 보여 남편의 만족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아내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할 것이다.

III. 자료 및 변수 조작화

1. 자료

이 논문에서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12년 사회조사를 기준으로 2010년 인구및주택총조사와 연계한 자료를 분석한다. 두 자료를 연계한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면, 결정적 연계와 확률적 연계를 순차 적용하였다(자료 연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미옥·최필근 2014, 2016 참조). 결정적 연계 단계에서는 지역, 나이, 이름, 성별 정보를 조합하여 두 자료 간 동일인을 탐색하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탐색범위를 조금씩 확대(예: 조사구→읍·면·동→시·군·구→광역시·시도 순)하면서 총 21개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만,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정확성은 유지해야 하므로, 연계된 자료에 대한 내용검토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6,581명이 연계되었고, 결정적 연계율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약 72.1%이다.

다음으로 결정적 방법으로 연계되지 못한 나머지 자료에 대해 두 자료에 공통적으로 있는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적 연계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성별, 연

령, 지역 항목을 블록킹 변수로 연계 대상을 제한한 후 개체 간 유사성 측정을 위해 혼인상태,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종사상지위, 점유형태를 연계 변수로 선택하여, 각 연계 변수에 대해 일치 변수 가중값과 불일치 변수 가중값을 계산하였다. 비교 대상 간 연계 변수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각 변수 가중값을 적용한 후 총 합(연계 가중값)이 가장 높은 사람과 연계하였다. 만일 연계 가중값의 최고점에 동점자 발생 시, 랜덤하게 한 명을 선택하여 연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연계된 자료의 부부 수준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부부만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2010년 기준으로 아내가 혼인상태에 있으며, 아내의 연령이 25세부터 39세이고, 2012년 기준 가구주의 배우자인 상태에 있어야 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가구주인 남편은 2010년 조사에서도 혼인 상태에 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곧 논의할 변수들에서 하나라도 결측값이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2010년과 2012년 모두 부부이면서 아내의 연령이 2010년 기준 25세부터 39세 사이인 부부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연계자료이기 때문에, 2012년 부부인 사람들이 2010년에도 부부였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 시기 간의 시간 차이가 크지 않기에 이혼 후 재혼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 사용된 자료는 우리가 원하는 모집단의 표본을 비교적 잘 대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를 25세에서 39세의 아내가 있는 부부로 한정된 것은 이 시기에 자녀 출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사례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이 거의 없는데다 다양한 만족도에서 급격한 하락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의 연령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만족도가 과대 추정될 위험이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 변수의 조작화

자녀 출산 여부는 2012년 사회조사 시 만 13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 유병 기간 및 치료에 관한 정보로부터 추출하였다. 2012년 사회조사에서는 만 13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 유병 기간 및 치료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구원들의 생년월일과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또한 조사되었는데, 이 정보에 기반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2년 조사 시기까지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결정하였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2010년 인구및주택총조사는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출산 자녀 수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정보를 활용하는 한편, 2012년 사회조사 문항에서 만 13세 미만 자녀가 2010년 11월 이후에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출산 경험에 1의 값을 주었다.

결과변수인 만족도는 2012년 이루어진 세 가지 만족도 질문을 활용하였다. 배우자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 관계에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 중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및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1점 “매우 만족”부터 5점 “매우 불만족”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이 분석에서는 0점 “매우 불만족”부터 4점 “매우 만족”까지 거꾸로 코딩해 높은 점수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원인변수(causal variable)인 자녀출산과 결과변수(outcome variable)인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현재 자료와 같은 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할 때는 원인변수와 만족도 변수 모두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인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김현식 2017b; Morgan & Winship 2007; Rosenbaum 2002; Wooldridge 2002). 이러한 혼동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일반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할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아내 관련 변수, 남편 관련 변수, 부부 관련 변수, 가구수준의 변수 등 네 가지 유형의 혼동변수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변수는 혼동변수라는 개념에 합치하도록,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0년 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2010년 조사에서 측정되지 않았으나 2012년 조사에서 측정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 또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 자료의 기술통계

	전체 비율/평균	출산 없음 비율/평균	출산 비율/평균
사례 수	2,973	2,512	461
비율	1.000	0.845	0.155
종속변수(연속변수)			
아내			
배우자관계 만족도	2.926	2.928	2.918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2.810	2.803	2.850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2.382	2.375	2.416
남편			
배우자관계 만족도	3.206	3.195	3.267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2.937	2.920	3.030**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2.285	2.283	2.297
만족도 차이(아내 - 남편)			
배우자관계 만족도	-0.280	-0.267	-0.349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0.127	-0.117	-0.180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0.097	0.093	0.119
아내 관련 변수			
연령대			
25~29	0.184	0.147	0.382***
30~34	0.351	0.328	0.477
35 이상	0.466	0.525	0.141
직업 유무(직업 있음)			
없음	0.562	0.545	0.653***
있음	0.438	0.455	0.34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0.403	0.426	0.275***
4년제 미만 대학교	0.286	0.277	0.334
4년제 대학교	0.266	0.252	0.341
대학원 이상	0.045	0.044	0.050
연령대			
25~29	0.083	0.065	0.180***
30~34	0.261	0.221	0.479
35 이상	0.656	0.713	0.341
직업 유무			
없음	0.067	0.068	0.061
있음	0.933	0.932	0.939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0.341	0.364	0.215***
4년제 미만 대학교	0.232	0.225	0.271
4년제 대학교	0.347	0.330	0.436
대학원 이상	0.081	0.081	0.078

(계속)

(계속)

	전체 비율/평균	출산 없음 비율/평균	출산 비율/평균
부부 관련 변수			
부부 연령차	3.013	3.115	2.458***
2010 년 기준 결혼 연수	7.808	8.445	4.335***
출산 아들 수	0.809	0.853	0.573***
출산 딸 수	0.786	0.827	0.564***
추가자녀 출산계획			
없음	0.688	0.760	0.297***
있음	0.312	0.240	0.703
가구변수			
2012 년 기준 가구소득			
200 만원 미만	0.174	0.164	0.228***
200~500 만원	0.682	0.685	0.668
500 만원 이상	0.144	0.151	0.104
가구원 수	3.677	3.781	3.111***
거주 주택 형태			
자가	0.513	0.525	0.445**
전세	0.291	0.277	0.367
월세	0.139	0.141	0.130
무상	0.057	0.057	0.059
기타 주택 소유			
없음	0.859	0.859	0.859
있음	0.141	0.141	0.141
거주 지역			
수도권	0.341	0.342	0.334
경상도	0.295	0.295	0.297
전라도	0.152	0.153	0.143
충청도	0.165	0.164	0.171
강원도	0.046	0.045	0.054
2012 년 기준 동읍면			
읍면부	0.155	0.159	0.132
동부	0.845	0.841	0.868

주: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을, 범주형 변수의 경우 각 범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마지막 열은 출산 여부에 따른 차이에 대한 t - 혹은 χ^2 -검정의 p -값을 보여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변수는 2010년에 측정되었음.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내 관련 변수와 남편 관련 변수로 연령과 직업 유무, 교육수준을 측정했다. 연령은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기술통계에서는 5세별 연령을 제시했으나 회귀 모형에서는 연속변수로 사용했으며, 연령이 만족도와 선형적인 형태보다는 2차 함수의 형태로 관계를 맺을 것으로 가정해 연령을 제곱한 항 또한 포함했다.

직업 유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주로 일하였거나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거나,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경우 직업이 있다(=1)고 하고, 일하지 않았을 경우 직업이 없다(=0)고 부호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추출하여, 고등학교 이하,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한 후 범주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이하를 기준값(baseline category)으로 세 개의 가변수를 만들었다.

부부 관련 변수는 남편의 연령에서 아내의 연령을 뺀 연령차를 측정하였으나 이는 기술통계에서만 보여주고 회귀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회귀분석에서는 아내의 연령과 남편의 연령을 모두 연속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변수의 선형 조합(linear combination)인 연령차는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 관련 변수로 2010년 기준 결혼 연수와 출산 아들 수, 출산 딸 수 및 추가 자녀 출산 계획 여부를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모두 아내의 응답에서 가지고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남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측정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결혼 연수는 응답 시기에서 초혼 시기를 빼서 구하였으며, 현재의 부부관계가 아내의 초혼이 아니거나 남편의 초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출산 아들 수와 출산 딸 수,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은 아내에게만 이루어진 질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또한 남편의 경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부 관련 변수들 중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은 이항 변수로 측정되어 계획이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주었다. 나머지 부부 관련 변수는 모두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가구수준의 변수는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 주택 형태, 기타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과 거주지 동·읍·면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가구소득에 대한 측정은 2010년 조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조사를 활용하여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세 수준으로 범주화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처음 변수 값을 기준으로 다른 두 범주를 나타내는 가변수를 생성하였다. 가구원 수는 가구 내 구성원의 수를 의미하며, 이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거주 주택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무상으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였고, 회귀분석에서는 자가를 기준으로 세 개의 가변수를 포함하였다. 현재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를 측정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었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로 구분하였으며, 회귀분석에 사용할 때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네 개의 가변수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읍·면·부인지 동부인지를 파악하여 전자에는 0의 값을 주고 후자에는 1의 값을 주었다.

3. 분석 모형

이 글에서 혼동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만족도를 연속변수로 취급한 후 일반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R에서 이루어졌다(김현식 2017b; Faraway 2002).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표 1>은 자료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는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을, 범주형 변수의 경우 전체에서 각 범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산을 한 부부와 출산을 하지 않은 부부별로 나누어 각 하위집단의 평균과 비율

을 보여줌으로써, 각 변수가 출산 여부와 얼마나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에서는, 연속변수의 경우 출산 여부에 따른 집단별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 결과의 p -값을, 범주형 변수의 경우 출산 여부에 따른 범주별 비율이 같다는 영가설을 검정하는 χ^2 -검정 결과의 p -값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사례는 2,973 부부이며, 그 중 84.5%는 두 시기 사이에 자녀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고, 나머지 15.5%만이 자녀를 출산하였다. 아내의 영역별 만족도 순서를 보면,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며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각 영역의 만족도가 모두 같다는 영가설을 F -검정해 보면 $p < 0.001$ 이며, 사후 검정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Tukey의 HSD(Honest Significance Differences)를 실행했을 때, 모든 만족도의 두 항목 간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모집단에서도 이들 영역별로, 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내의 각 만족도 영역별로 출산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배우자관계 만족도에서는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약간 떨어지지만, 나머지 두 영역에서는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t -검정 결과 통상적인 0.05 α -수준에서 유의미한 p -값을 보이는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만족도 역시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내의 만족도와 유사하다. 남편의 만족도 영역별 차이에 대한 F -검정과 Tukey의 HSD검정 결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와 모집단에서 영역별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자녀 출산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출산한 집단의 만족도가 출산을 하지 않은 집단의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남편의 만족도는 아내의 만족도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더군다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t -검정 결과 유의미한 p -값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출산에 따라 남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 행 묶음에서는 각 부부 내 아내의 만족도에서 남편의 만족도를 빼 값에 대한 비교를 함으로써 아내와 남편의 만족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모집단에서 만족도 차이가 0이라는 영가설을 t -검정하면, 이른바 paired t -검정이 되어 각 부부의 특성을 고려하는 아내-남편 간 만족도 차이 검정이 된다. <표 1>에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으나 실제 검정을 해보면 모든 만족도 영역에서 $p < 0.001$ 인 결과가 나온다. 즉 배우자관계 만족도와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아내의 만족도가 남편에 비해 낮지만,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자녀 출산 여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t -검정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영역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아내가 남편에 비해 낮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아내가 남편에 비해 높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

<표 1>의 여타 변수의 분포를 보면 우리의 분석자료가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내의 직업 유무별 분포를 보면 직업이 없는 아내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녀를 출산한 집단에서는 직업이 없는 아내가 과대대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출산에 관한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된 것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간의 역관계를 나타낸다(Kim 2014).

또한 부부 관련 변수의 분포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는 평균 3.013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출산을 한 집단에서 연령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차이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나, 최근 아내의 나이가 많은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평균 결혼 지속기간이 그렇지 않은 부부의 지속기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출산 아들 수와 출산 딸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째 자녀를 낳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도, 출산한 집단에서 추가자녀 출산 계획

이 있는 집단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비율보다 높게 나와,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의 출산력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Schoen et al. 1999).

2. 회귀분석 결과

1) 출산 여부에 따른 아내의 만족도 차이

자녀 출산이 아내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표 2>의 결과를 보면 자녀 출산의 계수가 -0.176으로, 배우자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집단에서도 자녀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계수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변수를 평균과 표준편차가 0과 1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시킨 후 얻는 계수인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는 것으로, 자녀 출산의 계수는 -0.066이 나타난다. 표준정규분포에서 0과 0.066 사이의 확률이 0.026이므로, 표준화 회귀계수 -0.066은 그리 큰 효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두 번째 측면에서, <표 2> 자체 내에서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회귀계수 -0.176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과적 추론의 입장에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긴 하지만, <표 2>에서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때에 비해 500만 원 이상인 가변수의 계수가 0.201정도이다. 다시 말해, 자녀 출산이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주는 영향은 거의 가구소득(300만원 이상 차이의 계수가 0.201이지만, 자녀 출산 계수가 -0.176이므로) 2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나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갖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2> 출산 여부에 따른 아내의 만족도 차이에 관한 회귀모형 추정결과

	배우자관계 만족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자녀 출산	-0.176	(0.053)***	-0.028	(0.046)	-0.026	(0.050)
아내: 연령	-0.192	(0.082)*	-0.118	(0.072)	-0.039	(0.077)
연령 제공	0.003	(0.001)*	0.002	(0.001)	0.000	(0.001)
직업(vs. 없음)	-0.033	(0.036)	-0.002	(0.032)	-0.086	(0.034)*
교육수준(vs. 고등 미만)						
4 년제 대학 미만	-0.028	(0.048)	0.006	(0.042)	0.106	(0.045)*
4 년제 대학교	0.070	(0.053)	0.097	(0.046)*	0.117	(0.049)*
대학원 이상	0.172	(0.096)	0.295	(0.083)***	0.185	(0.090)*
남편: 연령	-0.047	(0.030)	-0.038	(0.026)	-0.029	(0.028)
연령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직업(vs. 없음)	0.043	(0.071)	0.023	(0.062)	0.137	(0.067)*
교육수준(vs. 고등 미만)						
4 년제 대학 미만	0.058	(0.051)	0.056	(0.045)	0.078	(0.048)
4 년제 대학교	0.126	(0.050)*	0.094	(0.043)*	0.125	(0.047)**
대학원 이상	0.121	(0.077)	0.111	(0.067)	0.268	(0.072)***
부부: 2010 년 기준 결혼 연수	0.008	(0.007)	0.008	(0.006)	0.005	(0.006)
출산 아들 수	-0.021	(0.041)	-0.022	(0.036)	-0.060	(0.039)
출산 딸 수	-0.006	(0.040)	-0.002	(0.035)	0.017	(0.038)
추가자녀 출산계획(vs. 없음)	0.119	(0.051)*	0.016	(0.044)	0.030	(0.048)
가구: 2012 년 가구소득(vs. 200 만 미만)						
200 ~ 500 만 원	0.118	(0.050)*	0.041	(0.043)	0.279	(0.047)***
500 만 원 이상	0.201	(0.069)**	0.075	(0.060)	0.625	(0.065)***
가구원 수	0.014	(0.028)	0.024	(0.025)	-0.028	(0.027)
거주 주택 형태(vs. 자가)						
전세	0.020	(0.043)	0.004	(0.037)	-0.056	(0.040)
월세	-0.070	(0.055)	-0.059	(0.047)	-0.254	(0.051)***
무상	0.026	(0.079)	-0.111	(0.069)	-0.234	(0.074)**
기타 주택 소유(vs. 없음)	-0.003	(0.052)	-0.007	(0.045)	0.093	(0.048)
거주 지역(vs. 수도권)						
경상도	0.031	(0.045)	0.002	(0.039)	0.102	(0.042)*
전라도	-0.014	(0.055)	0.080	(0.048)	0.169	(0.052)**
충청도	0.073	(0.053)	0.041	(0.046)	0.060	(0.050)
강원도	0.121	(0.089)	0.306	(0.077)***	0.213	(0.083)*
2012 년 기준 동부(vs. 읍면부)	-0.067	(0.050)	-0.042	(0.043)	-0.171	(0.047)***
절편	7.214	(1.315)***	5.563	(1.141)***	3.437	(1.232)**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출산 여부에 따른 남편의 만족도 차이에 관한 회귀모형 추정결과

	배우자관계 만족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자녀 출산	-0.074	(0.047)	-0.041	(0.045)	-0.049	(0.050)
아내: 연령	-0.133	(0.073)	0.047	(0.070)	0.021	(0.078)
연령 제공	0.002	(0.001)	-0.001	(0.001)	0.000	(0.001)
직업(vs. 없음)	-0.024	(0.032)	-0.008	(0.031)	-0.067	(0.035)
교육수준(vs. 고등 미만)						
4 년제 대학 미만	0.036	(0.043)	0.055	(0.041)	0.035	(0.046)
4 년제 대학교	0.068	(0.047)	0.111	(0.044)*	0.049	(0.050)
대학원 이상	0.188	(0.085)*	0.184	(0.081)*	0.219	(0.091)*
남편: 연령	-0.041	(0.026)	-0.036	(0.025)	-0.023	(0.028)
연령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직업(vs. 없음)	-0.041	(0.064)	0.021	(0.060)	0.181	(0.068)**
교육수준(vs. 고등 미만)						
4 년제 대학 미만	0.098	(0.046)*	0.015	(0.043)	0.049	(0.049)
4 년제 대학교	0.113	(0.045)*	0.080	(0.042)	0.096	(0.047)*
대학원 이상	0.136	(0.068)*	0.105	(0.065)	0.272	(0.073)***
부부: 2010 년 기준 결혼 연수	-0.004	(0.006)	-0.003	(0.006)	0.007	(0.006)
출산 아들 수	0.034	(0.037)	0.033	(0.035)	0.015	(0.039)
출산 딸 수	0.001	(0.036)	0.014	(0.034)	0.043	(0.038)
추가자녀 출산계획(vs. 없음)	0.088	(0.046)	0.090	(0.043)*	0.076	(0.048)
가구: 2012 년 가구소득(vs. 200 만 미만)						
200~500 만원	0.058	(0.044)	0.028	(0.042)	0.296	(0.047)***
500 만원 이상	0.135	(0.061)*	0.117	(0.058)*	0.727	(0.065)***
가구원 수	0.012	(0.025)	0.024	(0.024)	-0.044	(0.027)
거주 주택 형태(vs. 자가)						
전세	-0.003	(0.038)	0.005	(0.036)	-0.035	(0.041)
월세	-0.019	(0.049)	-0.086	(0.046)	-0.212	(0.052)***
무상	-0.079	(0.071)	-0.027	(0.067)	-0.034	(0.075)
기타 주택 소유(vs. 없음)	0.099	(0.046)*	0.046	(0.044)	0.147	(0.049)**
거주 지역(vs. 수도권)						
경상도	-0.023	(0.040)	-0.007	(0.038)	0.172	(0.043)***
전라도	-0.101	(0.049)*	-0.008	(0.047)	0.185	(0.052)***
충청도	-0.036	(0.047)	0.002	(0.045)	0.065	(0.050)
강원도	0.095	(0.079)	0.230	(0.075)**	0.153	(0.084)
2012 년 기준 동부(vs. 읍면부)	-0.073	(0.045)	0.039	(0.042)	-0.110	(0.047)*
절편	6.425	(1.171)***	3.041	(1.109)**	2.165	(1.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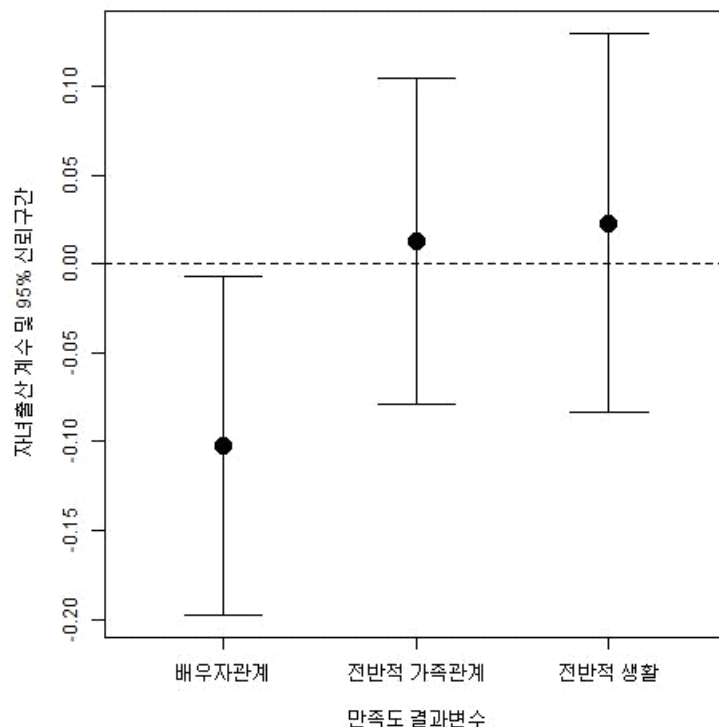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출산 여부에 따른 남편의 만족도 차이

<표 3>에는 자녀 출산이 남편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추정한 회귀 모형의 계수들을 제시하였다. 그 계수들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자녀 출산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들 결과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3) 출산 여부에 따른 아내와 남편의 만족도 차이

자녀 출산에 따라 나타나는 아내의 만족도 차이와 남편의 만족도 차이 중 어느 쪽의 만족도 차이가 어떤 방향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인가? <표 2>에 있는 각 변수의 계수 값에서 <표 3>에 있는 상응하는 변수의 계수 값을 빼면 아내의 만족도에서 남편의 만족도를 뺀 후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하는 계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림 1〉 아내와 남편의 만족도 모형에서 자녀 출산 계수 및 95% 신뢰구간

다만 이들 표로부터 표준오차나 유의도를 구할 수는 없는데,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기 위해 <그림 1>에 각 만족도 종속변수별 자녀 출산의 계수 값과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또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y-축에 0 값을 표시하여, 이 선에 걸쳐 있는 신뢰구간은 0.05 α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때 계수 값과 신뢰구간은 다른 모두 혼동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구한 추정치라는 것을 덧붙인다.

<그림 1>을 보면 다른 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배우자관계 만족도에서 아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남편이 느끼는 만족도 보다 낮으며, 이는 0.05 α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보다 배우자 관계에 있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자녀 출산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만족도 변화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V. 연구의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를 출산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내가 느끼는 배우자관계 만족도 차이는 출산 집단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남편의 만족도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남편의 만족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남편에 비해 아내가 자녀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관계 만족도의 하락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사회의 성별화된 가사노동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니다. 가사노동뿐 아니라 가족 외부에서의 노동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도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의 노동시간에 비해 높은 편이다(박종서 2013; 은기수 2009). 여기에 출산 과정에서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오

제은 2011), 아내의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떨어질 것, 그것도 남편에 비해 매우 많은 정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이러한 발견에서 다른 영역의 만족도, 즉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나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의외의 결과라 생각된다. 가족관계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출산한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 얻는 만족도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도가 배우자관계에서 생기는 불만족을 중화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우리의 분석은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제시된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무엇보다 우선 변수 측정의 문제가 있는데, 두 조사 시기 모두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더 강한 추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2010년 시기에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측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출산 전 만족도를 통제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선택 효과를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효과와 관련되어 우리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높은 부부가 출산을 하는 선택 효과가 실제 작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연구에서 추정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과대 추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만큼 출산으로 인해 아내가 남편에게 갖게 되는 만족도의 하락은 그만큼 더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해석이 현실에 적합한지는 경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측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지나치게 경제적 의미를 대표하도록 고안된 것도 이 분석의 한계로 생각된다. 변수 측정 부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질문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을 과대 대표하도록 질문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들을 다시 살펴보면, 경제적인 변수들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측정 방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또 하나 언급할 만한 이 연구의 한계는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내에 만족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출산은 2010년 11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2012년 5월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녀 생후 19개월 이내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에 따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Myrskylä & Margolis의 연구(2014)처럼 출산 후 시간에 따른 만족도 변화를 추적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다양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출산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초저출산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녀 출산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문헌에서 잃어버린 부분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내의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하면 더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추가 자녀 출산으로 인해 만족도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저출산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커다란 의의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해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향후 연구를 설계한다면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더욱 통찰력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7. 맘고리즘을 넘어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s170
에서 인출.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 김현식. 2012a. “신혼 초기 첫째자녀 출산과 삶의 만족도.” 《인구교육》 5: 71-89.
- 김현식. 2012b.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4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식. 2015.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2015 한국재정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33-16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현식. 2016. “전문가판단법을 활용한 출산력 추계.” 김현식·계봉오·김현태 《장애인구추계 출산력·사망력 추계방법 개선 연구》 통계청연구보고서: 6-39.
- 김현식. 2017a. “초저출산.” 《인구대사전》. 통계청.
- 김현식. 2017b. 《R을 활용한 기초 통계 분석》.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대한민국정부. 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 박경환. 2012. “여성 관리자의 결혼 및 출산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계획,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03-121.
- 박종서. 2013.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5월호: 28-38.
- 배규식. 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경제와 사회》 95: 128-162.
- 오제은. 2011. “첫 아이 출산 후 남편이 경험한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8): 73-83.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삼식·정경희 외. 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2010-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옥·여정희·안숙희·이현숙·양현주·한미정. 2010. “산후 우울 수준과 분만전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1: 29-36.
- 정미옥·최필근. 2014. “사회조사 자료연계 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201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III: 34-72.
- 정미옥·최필근. 2016. “확률적 자료연계의 활용 가능성 연구.” 《통계개발원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II: 1-55.
- 통계청. 2016. 각종 통계자료. kosis.kr에서 인출
- Becker, G.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Universities- 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eds.),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209-23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etre, S., A.E. Clark, and C. Senik. 2016. "Happy People Have Children: Choice and Self-selection into Parenthood."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2: 445-473.
- Damaske, S., J.M. Smyth, and M.J. Zawadzki. 2014. "Has Work Replaced Home as a Haven? Re-examining Arlie Hochschild's Time Bind Proposition with Objective Stress Data." *Social Science & Medicine* 115: 130-138.
- Faraway, J.J. 2002. Practical regression and ANOVA Using R.
<https://cran.r-project.org/doc/contrib/Faraway-PRA.pdf>
- Hansen, T. 2012. "Parenthood and Happiness: A Review of Folk Theories versus Empirical Evid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 26-64.
- Kim, H.S. 2014.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0(3): 252-273.
- Kim, H.S. 2015. "Women's Wages and Fertility Hazards in South Korea." *Asian Women* 31(2): 1-27.
- Kohler, H. and L. Mencarini. 2016. "The Parenthood Happiness Puzzle: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2: 327-338.
- McLanahan, S. and J. Adams.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237-257.
- Morgan, S.L. and C. Winship. 2007. *Counterfactuals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Principle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yrskylä, M. and R. Margoli. 2014. "Happiness: Before and After the Kids." *Demography* 51: 1843-1866.
- Pedersen, P.J. and T.D. Schmidt. 2014.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aving Children." *IZA Discussion Paper* No. 8207.
- Rosenbaum, P.R. 2002. *Observational Studies*(2nd ed.). New York: Springer.
- Schoen, R., N.M. Astone, Y.J. Kim, C.A. Nathanson, and J.M. Fields.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790-799.

Wooldridge, J.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A: The MIT Press.

<접수 2017/02/14, 수정 2017/05/08, 게재확정 2017/06/13>